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공무국외연수 개요]

- 기 간 : 2023. 3. 10 ~ 19. (8박10일)
- 장 소 : 영국, 이탈리아, 독일
- 대 상 : 12명(기경위 의원6, 직원3, 관련 부서 직원3)
- 연수목적 : 유럽 경제와 산업 정책의 도정 접목방안 연구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Ⅰ. 연수 개요 ······························ 1

Ⅱ. 연수 일정 ······························ 3

Ⅲ. 방문 기관별 연수 내용 ················· 5

Ⅳ. 정책 제언 ······························ 39

Ⅴ. 연수 후기 ······························ 42

-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Ⅰ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유럽의 경제·산업 관련 시설 및 문화유산 등의 비교 시찰 통해 우리 도 행정에 접목시키고,

○ 각 나라의 사회·경제·문화 등에 대한 특징을 비교 체험하여 글로벌하는 지방행정에 대처하며 경쟁력을 제고

○ 폐쇄 화력발전소의 및 도내 미활용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 모색

○ 충남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의 필요성 검토

○ 유럽 주요 경제 동향 파악 및 국내기업 수출 및 외투기업 유치 방안 모색

2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23. 3. 10.(금) ~ 3. 19.(일) / 8박 10일

○ 방 문 지 : 3개국(영국, 이탈리아, 독일)

- 런던 코인스트리트 등 13개 기관 및 시설

○ 연 수 단 : 12명

- 도의원 6명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이지윤)
- 집행부 3명
  (정책기획관실 정책협력팀장 노희준, 미래산업과 미래산업정책팀장 김운석,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조덕희)
- 전문위원실 3명(김민규 수석전문위원, 남홍우·김동은 주무관)

3 연수단 주요 임무

<table>
<tr><th>구분</th><th>소속</th><th>직위</th><th>이름</th><th>주요 임무</th></tr>
<tr><td rowspan="5">1조
(5명)</td><td>기경위</td><td>위 원 장
(단 장)</td><td>김명숙</td><td rowspan="3">▸ 선진 유럽 기획·경제 분야 도정접목 방안 연구
- 독일 해외사무소 운영 필요성 등 검토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동조합 통한 소도시 소멸 위기 극복 사례 및 충남도정 정책 방향 모색
- 도내 고용안정 정책과 유럽 정책 비교하여 도정 정책 방향 모색</td></tr>
<tr><td>기경위</td><td>위 원</td><td>김석곤</td></tr>
<tr><td>기경위</td><td>위 원</td><td>이지윤</td></tr>
<tr><td>기 획
조정실</td><td>정책협력
팀 장</td><td>노희준</td><td rowspan="2">▸ 방문기관 사전 자료 수집
▸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 도입가능성 검토 등</td></tr>
<tr><td>산 업
경제실</td><td>사회적경제
육석팀장</td><td>조덕희</td></tr>
<tr><td rowspan="4">2조
(4명)</td><td>기경위</td><td>부위원장
(부단장)</td><td>윤기형</td><td rowspan="3">▸ 선진 유럽 산업·교육 분야 도정접목 방안 연구
- 도내 폐쇄 및 폐쇄 예정 화력발전소 시설물 현황 및 방향 모색
- 충남 외국 기업 투자유치 현황 및 기업 유치 현지 상담 사례 연구 및 충남도 정책 방향 모색
- 충남 명장 현황 및 명장 육성 및 발굴 위한 지원정책 방향 모색</td></tr>
<tr><td>기경위</td><td>위 원</td><td>이종화</td></tr>
<tr><td>기경위</td><td>위 원</td><td>이재운</td></tr>
<tr><td>산 업
경제실</td><td>미래산업
정책팀장</td><td>김운석</td><td>▸ 방문기관 자료 수집 및 충남도와 정책비교
▸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 도입가능성 검토 등</td></tr>
<tr><td rowspan="3">지원조
(3명)</td><td>기경위</td><td>수 석
전문위원</td><td>김민규</td><td>▸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수립(총괄)
▸ 의원지원 총괄, 연수단장 보좌</td></tr>
<tr><td>기경위</td><td>주 무 관</td><td>남홍우</td><td>▸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수립(실무)
▸ 공식방문 기관 간담회 내용 요약 및 정리(정)
▸ 정책 제안사항 요약 및 정리
▸ 의원 지원 (1조)</td></tr>
<tr><td>기경위</td><td>주 무 관</td><td>김동은</td><td>▸ 연수단 예산 및 회계 관리
▸ 연수단 사진 촬영 및 편집 등
▸ 공식방문 기관 간담회 내용 요약 및 정리(부)
▸ 의원 지원 (2조)</td></tr>
</table>

Ⅱ 연수 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일 정
제1일 3월10일 (금)	인천 런던	OZ521	09:30 12:10 18:10	• 인천 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 인천 공항 출발 • 런던 공항 도착 (약 15시간 비행)
제2일 3월11일 (토)	영국 런던	전용차	13:00	▸ **공식일정 [코인 스트리트]** - 런던 구도심의 주민 주도 사회적기업을 결성하여 마을만들기(도시재생) 추진 지역
제3일 3월12일 (일)	영국 런던	전용차	10:00	▸ **정책 현장방문 [배터시 파워스테이션]** - 템즈강변 화력발전소가 1983년 폐쇄 후 2022년 쇼핑몰, 사무실, 아파트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런던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 (경제 활력)
			12:00	▸ **정책 현장방문 [테이트 모던]** - 템즈강변 화력발전소가 1981년 폐쇄 후 2000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 하여 런던 내 명소로 발전 후, 주변 경제 활성화 사례
		EZY811	15:00 17:00	• 런던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 런던 공항 출발
	영국 에딘버러		18:30	• 에딘버러 공항 도착 (1시간 30분 비행)
제4일 3월13일 (월)	영국 에딘버러	전용차	10:00	▸ **정책 현장방문 [에딘버러 고용보장 센터]** - 에딘버러 시, 학교, 산업체 등 파트너십 형성하여 지역 졸업생 취업 매칭 및 교육 기관
			12:00	▸ **정책 현장방문 [스코틀랜드 의회]** - 1997년 주민투표로 영구 의회와는 별도의 스코틀랜드 의회가 1998년 설립
			16:00	▸ **공식일정 [에든버러 대학교]** - 1583년 개교하였고, 영미권에서는 6번째로 오랜된 대학교이며, 5개의 캠퍼스로 구성, 2020년 기준 학생수는 44,510명 (서울대 약 2배)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일 정
제5일 3월14일 (화)	영국 에딘버러	EJU2684	09:30 11:45	• 에딘버러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 에딘버러 공항 출발
	이탈리아 밀라노		15:10	• 밀라노 공항 도착 (2시간 25분 비행)
제6일 3월15일 (수)	이탈리아 밀라노	전용차	09:00	▸ **공식일정 [가업승계 장인]** - 1854년부터 6대째 아들에게 계승하여 패션 액세서리 및 우산 등을 제작 및 판매 중인 장인
			14:00	▸ **공식일정 [프라다 문화재단]** - 1910년 지어진 산업단지 내 7개동 폐공장을 활용하여 2015년 미술관 겸 문화시설을 만들어 지역 명소로 발전, 주변 경제 활성화 사례
제7일 3월16일 (목)	이탈리아 밀라노	LH247	08:40 11:10	• 밀라노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 밀라노 공항 출발
	독일 프랑크 프루트		12:20	• 프랑크프루트 공항 도착 (1시간 20분 비행)
		전용차	16:00	▸ **공식일정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 - 별도 법인으로서 운영 중이며 프랑크푸르트에서 국개 기업의 유럽 진출 시 대출 등 상담
제8일 3월17일 (금)	독일 프랑크 프루트	전용차	09:00	▸ **공식일정 [전남 유럽 해외사무소]** - 2012년부터 운영 중으로 전국 지자체 중 프랑크프루트 사무소 유일하게 운영 중 ※ 충청남도 독일 해외사무소 설치 준비 중
			10:50	▸ **공식일정 [프랑크푸르트 코트라 무역관]** - 프랑크프루트 코트라 무역관 운영 및 기업 지원 현황
			15:00	▸ **공식일정 [파이퍼 베큠 외투기업]** - 반도체 관련 진공펌프 생산 독일 전문 기업 ※ 아산시 인주면 내 외투 기업
제9일 3월18일 (토)	독일 프랑크 프루트	전용차	10:00	▸ **정책 현장방문 [자율주행버스 탑승]** - 프랑크푸르트 2.7km 구간 도심지 자율주행 시범운행 중인 버스 시승
		OZ 542	15:00 17:35	• 프랑크프루트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 프랑크프루트 공항 출발
제10일 3월19일 (일)	인천		13:15	• 인천 공항 도착

Ⅲ 방문 기관별 연수 내용

1 코인 스트리트 (공식 방문)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3. 11.(토) 13:00~15:00

❍ 현장설명 : Cait Saunders 외 1명 ※ 대외관계 책임자

❍ 미팅장소 : 코인스트리트 컨퍼런스 센터

※ 코인스트리트 : 템즈강 남단 서더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② 현황 설명 주요 내용

❍ 런던 템즈강변 남단을 따라 조성된 사우스뱅크(South Bank) 복합문화지구에 인접한 곳으로, 과거 템즈강 수운을 이용한 화물수송의 거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운업 쇠퇴로 인해 부두가 폐쇄되고 지역경제 침체 시작

❍ 1970년대 코인스트리트 인근 사우스뱅크가 문화예술지구로 지정되고, 런던시청이 들어서면서 코인스트리트도 개발압력을 받음

❍ 1974년 민간개발업자의 초고층 건물 건설 개발계획 등 민간주도의 개발에 불만을 품은 지역 주민들의 캠페인 활동 시작

- 지역의 개발계획안을 주민 손으로 만들자는 캠페인

※ 코인스트리트지구 마을만들기의 시작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에 런던시청의 지지를 얻으며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과 주민주도 개발계획 양측 계획 정부 심사

※ 주민주도 개발계획으로 추진 결정

❍ 1984년 코인스트리트 주민들의 민간 비영리법인 사업체인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CSCB) 결성 ※ 코인스트리트 첫 번째 사회적 기업

○ CSCB 주축으로 코인스트리트 내 임대주택(최초 1988), 옥소타워 상업 임대건물(1993), 지역 어린이 보육시설과 주민평생교육 공간, 야외 스포츠 시설(2005) 등 건축

○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센터 개관(2007)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정기모임, 회의) 및 회의실 임대사업 수입 창출 중

○ 장기 추진사항인 둔 스트리트(Doon Street) 개발은 2013년 1단계 완성하여 댄스 스튜디오 및 소공연 실시 중임

※ 2단계(수영장, 실내체육관, 주거공간 등), 3단계(사무실, 요양원 등)

③ 주요 질의 답변

○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는지?

⇨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은 없으며, 자체 수익사업으로 비용 충당

○ 코인스트리트 사회적 기업의 주요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마을만들기 사업체(CSCB, 마을 개발사업), 주택조합(CSS, 주택 개발), 생활복지센터(CSCT, 주민복지) 크게 3가지 조직으로 구성

○ 코인스트리트 사회적기업의 주요 수입원은 어떻게 되는지?

⇨ 약 75%가 상가, 주차장, 전시장 등 임대에서 발생되며 일부 지역사회 커뮤니티 이용료에서 13%(체육시설 회원권 등), 주택 임대료 8% 등이 수입원

○ 코인스트리트 사회적기업의 주요 지출원은 어떻게 되는지?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을 위해 약 41%, 코인스트리트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36%, 기타 사업 추진 시 필요했던 대출금 상환 등에 쓰임

○ 코인스트리트 운영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규모는?

⇨ 직원은 100여 명으로 내부 프로그램 운영, 임대사업 관리 등 다양한 부서로 나눠 있으며 본인은 대외관계 부서에서 근무 중임

○ 주거를 희망하는 자에게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는지?

⇨ 런던 람베트구와 사우스워크구에 사는 저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코인스트리트 총회에 2/3이상 출석해야 함

※ 코인스트리트 내에 해당자 약 1,200명 리스트가 있음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CSCB)이 결성된지 약 30년이 지났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지?

⇨ 기존 주민과 새로운 임대주택 주민과의 가치 차이로 약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마을회의 참석, 지역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④ **시사점**

○ 코인스트리트의 가치는 지역의 개발 문제를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공공부문 주도의 도시재생사업과는 큰 차이를 보임

○ 1988년 최초 임대주택 보급 후 현재까지 200여채 정도만 보급하는 등 사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임대주택을 통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철학을 지키고자 노력 중

※ 대규모 사업 둔 스트리트 개발은(주거 200여채, 수영장 등) 내외부 비판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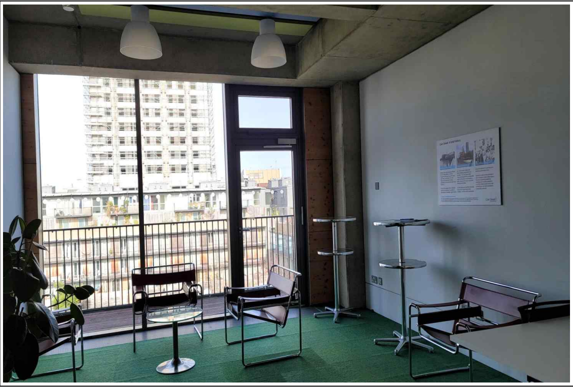
○ 도내 도시형·농촌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은 제3자인 공무원인 관계기관의 계획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또는 경제활동을 할 주민 직접 참여한 계획이 중요

※ 주민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강화 필요 (선진 사례 교육 등)

⑤ 현장 사진

< 코인스트리트 현황 설명 >

< 코인스트리트 주민센터 실내 >



< 코인스트리트 주민센터 실외 >

< 둔 스트리트 건설 현장 >

< 방문기념 사진 >

2 테이트모던 및 배터시 파워스테이션 (현장 견학)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배터시 파워스테이션) 2023. 3. 12.(일) 10:00~11:30
- (테이트모던) 2023. 3. 12.(일) 12:00~13:00

② 현장 견학 주요 내용

❍ 테이트모던과 파워스테이션은 런던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며 영국 경제성장을 이끌던 화력발전소로 공해 등의 이유로 폐쇄 후 방치됐던 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사례

<배터시 파워스테이션>

❍ 1929년에서 195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완공 된 배터시 파워스테이션(Battersea Powerstation)은 2개의 발전소가 하나로 묶인 형태로 총 4개의 굴뚝이 있음(테이트모던은 2개의 굴뚝)

❍ 1983년에 발전소가 완전히 폐쇄된 후, 단순히 방치된 것이 아니라 런던의 상징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으나, 2012년 보호 건축물로 지정하여 섣부른 개발을 방지함

※ 2012년 보호 건축물 2단계 지정 (총 3단계 유형, 팝가수 비틀즈 애드로드 스튜디오도 2단계)

* 영국 역사관, 놀이동산, 스포츠 시설, 상가, 공원 등

❍ 파워스테이션 대주주가 중간중간 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되다, 2006년과 2012년에 걸쳐 새로운 소유주와 투자자를 만나며 사업 추진

❍ 2014년에 4개의 굴뚝은 조심스럽게 해체하고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17년에 완전히 재건,

※주변 건축물 발전소 본건물보다(굴뚝 제외) 높이 짓지 못하게 계획 (굴뚝 랜드마크)

❍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주변 개발은 총 7단계의 개발계획이 있으며 그중 1단계는 발전소 서쪽 지역의 상가, 주거지역임(2017년 개소)

❍ 2021년에는 배터시 파워스테이션 주변에 지하철역이 새롭게 준공되면서 런던시민의 접근성 개선

❍ 배터시 화력발전소 자체는 복합쇼핑몰, 전망대, 홍보관 등의 형태로 2022년 오픈 (방문 당시도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 외관 벽돌 등 기존 건축물 구조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리모델링

❍ 발전소 주변의 공원 조성 등 나머지 단계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테이트 모던>

❍ 1981년 가동을 중지한 화력발전소가 20년간 방치되다가 새천년 시작을 기념*하고, 런던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대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2000년에 개관

* 영국의 대표 관광지 런던아이(London Eye)도 새천년 시작 기념 건설

❍ 현재 유럽에서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성장하였고, 일부 특별전시회를 제외하고는 무료 입장

❍ 미술작품 관람이 아니더라도 꼭대기 층인 6층 전망대 및 카페에서 템즈강을 바라보며 주말을 보내는 런던시민 및 관광객 방문

❍ 미술 전시 공간의 부족으로 기존 화력발전소 공간 옆에 유사한 설계의 10층 규모의 새로운 건물 최근 증축

③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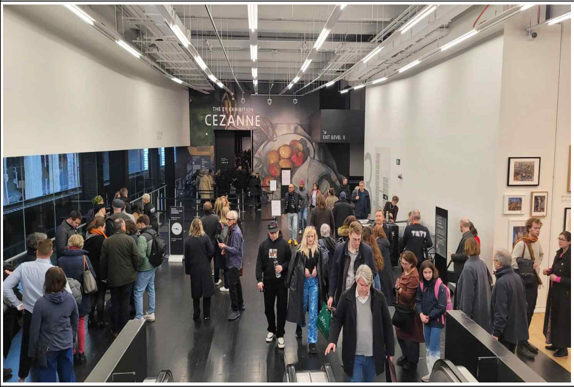
❍ 산업혁명 발생지인 영국은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된 화력발전소를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이 아닌 어렵지만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단순 재개발을 넘어 재생의 노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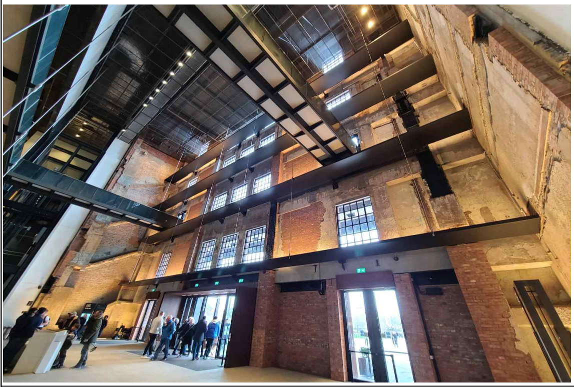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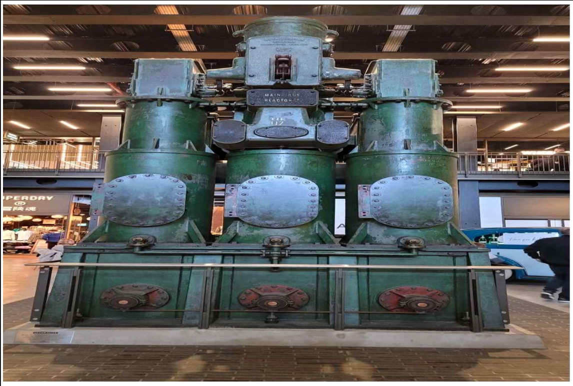
❍ 런던이라는 시내권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라는 특성이 도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화력발전소라는 구시대의 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도심지 계획상에 랜드마크로 삼은 계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 전국 화력발전소가 절반인 29기가 위치한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탄소중립의 선도적 실천을 계획 중

○ 폐쇄되었거나 폐쇄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향후 활용방안 검토하여 그동안 발전소로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과 충남도민에게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동력 방안 마련 필요.

④ 현장 사진

< 테이트모던 건물 외관 >	< 테이트모던 내부 (과거시설 보존) >
< 테이트모던 방문객 >	**< 테이트모던 체험장 (그리기) >**
	
< 배터시화력발전소 외관 >	**< 배터시화력발전소 방문객 >**

< 배터시화력발전소 내부 (과거시설 보존) >	
	
< 테이트모던 방문기념 사진 >	< 배터시화력발전소 방문기념 사진 >

3 에든버러 고용보장센터 (현장 견학)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3. 13.(월) 10:00~11:00

② 현장 견학 주요 내용

○ 2009년 미국 리만브러더스 발 세계 경제 위기 시 영국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며,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어려움 발생

○ 에든버러 시의회 평의회 주도로 젊은이에게 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2011년 설립

○ 지속적으로 고용주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졸업생을 교육한 결과 교육생이 원하는 직장의 취업 성공률이 20년 12% 이상 증가함

○ 16~67세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과 구직 현금지원 실시

○ 장애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3개의 직장 경험을 쌓으며, 업무 습득 및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

○ 부모취업 지원기금(Parent Employment Support Fund)*을 운영하여 부모의 취업과 이직을 지원

* 아동빈곤의 해결을 위해 부모의 안정적 취업 보장 지원 기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취업 지원(통역, 정보제공, 언어교육 등) 강화하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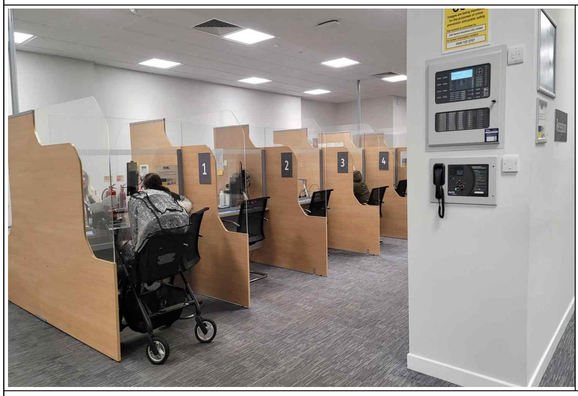
③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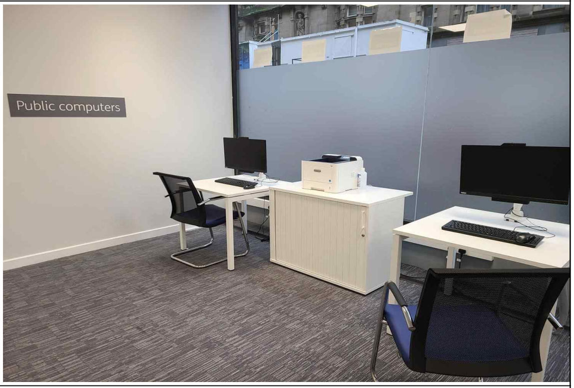
○ 다양한 계층의 사례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자-고용주간 목표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의회-센터-고용주-노동자 간 소통을 실시

○ 아동보육의 안정화를 위해 부모취업 지원기금의 조성과 활용은 결국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한 참고할 정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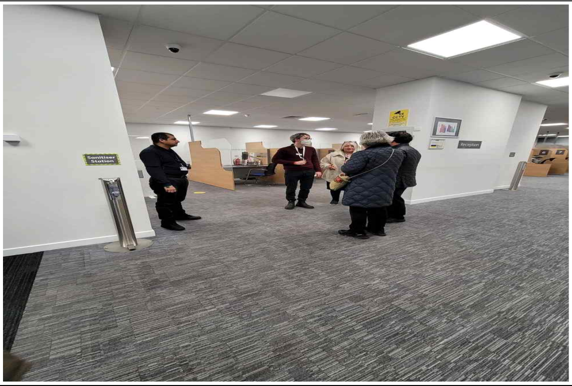
④ 현장 사진

< 고용보장센터 내부 사진 >





< 현장 설명 >



4 스코틀랜드 의회 [현장 견학]

① 방문 개요

- ❍ 방문일시 : 2023. 3. 13.(월) 12:00~13:00

② 현장 견학 주요 내용

- ❍ 방문시 회기 중은 아니었지만, 한 나라의 국회 건물 내를 방문하는데 소지품 확인 등 간단한 검사 후 출입 가능
- ❍ 스코틀랜드 의회는 잉글랜드 의회와의 합병으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소재하는 그레이트 브리튼 의회(Parliament of Great Britain)에 같이 있었으나,
- ❍ 1997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1998년 스코틀랜드 법에 의거 스코틀랜드 의회가 새롭게 설립됨. (1999년 5월 개원)

※ 영국 의회가 스코틀랜드 의회에 위임권한 범위 수정 가능

- ❍ 2014년 스코틀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투표에서 찬성 44%, 반대 55%로 부결*됐으나, 브렉시트 이후 재투표 필요성 제기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은 스코틀랜드의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

- ❍ 현재 총 129명 정원의 단원제 입법부로 스코틀랜드의 잉글랜드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국민당이 다수당임

※ 여당 71석(국민당 64, 녹색당 7), 야당 57석(보수당 31, 노동당 22 등), 의장 제외

- ❍ 의회 본회의장은 하나의 공간에 기둥이 없는 형태로 스코틀랜드 해변에서 발견한 뒤집힌 선체를 모티브로 설계
- ❍ 의원실과 직원 사무실 내에는 독서나 대화를 나누기 좋은 독특한 형태의 공간이 있는데 이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있는 스코틀랜드인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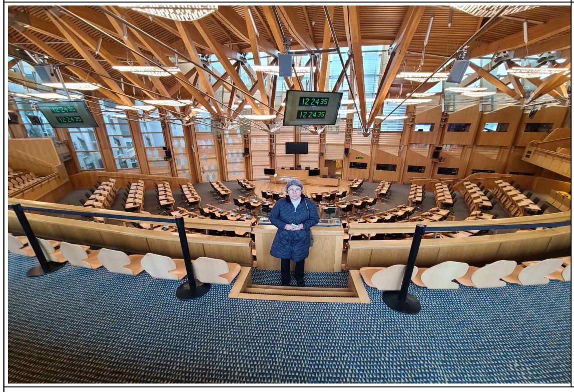
③ 시사점

○ 사방이 트이고 햇빛이 드는 본회의장의 개방감은 본회의장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형태

○ 에든버러에 오는 관광객도 의회를 둘러보러 다수 입장하고 있었으며, 건물은 전체적으로 나뭇가지가 중심에서 뻗어 나오는 모양에(나무, 철근 등 소재) 작은 창을 만들어 햇살이 들어오는 모양을 연상시키는 구조임

※ 건물 외관은 나뭇잎 모양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뭇잎을 형상화 (충청남도의 상징마크인 아름드리나무와 유사)

④ 현장 사진

< 본회의장 내부 >	< 홍보관 >
	
< 스코틀랜드 의회 조형도>	**< 방문기념 사진>**

5 에든버러 대학교 (공식 방문)

① 방문 개요

- ❍ 방문일시 : 2023. 3. 13.(월) 13:00~15:00
- ❍ 현장설명 : 경영대학 송지원 교수(고용·인적자원 관리 박사)
- ❍ 미팅장소 : 경영대학 강의실

② 현황 설명 주요 내용

- ❍ 영국 경제 전반적 상황은 세계 경제 흐름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실질 임금은 줄면서 서민 경제 악화상태
- ❍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행정 등 공공부문의 봉사가 컸음에도 혜택이 부족하며 공공부문 파업도 강화되는 추세임
- ❍ 영국은 제조업은 장기간 쇠퇴하다 지금은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서비스업이 주 산업 분야로서 펜데믹으로 사람의 이동이 제한된 후, 유럽 국가 중 손실이 큰 편임
- ❍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경제가 어두워졌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코로나와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겹치며 브렉시트만으로 영국 경제 침체가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주요 질의 답변

- ❍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한국보다 많이 낮은데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한 자와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자의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 ⇨ 전에 머물렀던 스웨덴의 경우 차이가 크지 않아 보였으나, 영국의 경우 임금 차이가 큼, 특히 금융업이나 법률 서비스 등 영국에서 인기 있는 직종은 급여가 높음

❍ 스코틀랜드 출신 학생이 에든버러대학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을 하는지?

⇨ 스코틀랜드는 특별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은 런던이나 타국으로 직장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국에 남아도 경제도시인 글래스고에서 많이 정착

❍ 교수대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과 비교하면 교수대 학생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런 이유로 학생과의 소통을 긴밀히 할 수 있음

⇨ (본인의) 한국 학생시절 과제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에 반해, 이곳은 제출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에게 주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

❍ 학생 휴게실을 둘러보니 영국 이외의 학생 비율도 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교환학생이 많은지?

⇨ 서양권 국가 중에는 영국과 가까운 미국인 학생이 가장 많고,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인 학생이 가장 많음

❍ 영국에서 3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받는 대학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우선 오래됐고 졸업생이 많이 배출된 대학이고, 기초과학 분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들이 있었음.

⇨ 기업 입장에서 대학 연구소에 기부를 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산업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에든버러대 로슬린연구소 복제양 돌리 성공(1997년)

❍ 노사관계 분야가 주 전공인데 이 분야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국가를 꼽는다면?

⇨ 노사관계의 발전에서 정부 역할은 지나친 개입이 아니라 사측이 동등한 권리로 발언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 생각됨.

⇨ 그런 측면에서 북유럽이나 동유럽, 특히 스웨덴이 노사관계의 거시적 운영이 잘되고 있음

④ 시사점

❍ 에든버러대는 교수대 학생 비율이 낮음으로 교수가 학생의 레포트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교육 문화가 23년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에서 15위 기록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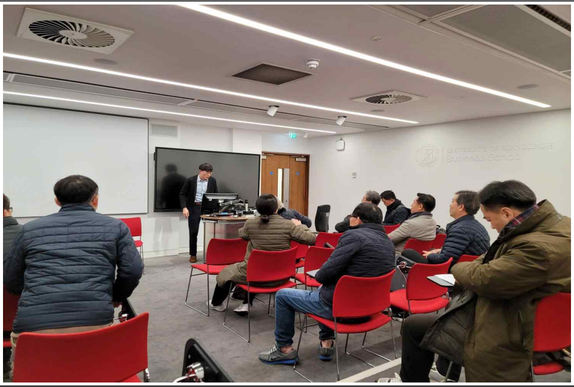
* 영국 내 대학 분석 전문 기업

❍ 인정받는 대학은 단시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수한 졸업생을 꾸준히 배출해 가며 쌓아 올리는 것으로 장기적 안목의 과제 필요

⇨ 충남도립대 교수 대 학생 비율 제고 방안 및 연구 강화 필요

⑤ 현장 사진

< 에든버러대학교 현황 설명 >



< 기념품 전달 >	< 방문기념 사진 >

6 가업승계 명장 소상공인 (공식 방문)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3. 15.(수) 09:00~10:30

❍ 현장설명 : Maglia 가문 우산 제작 6대째 장인(30대)

※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아들 이름을 Francesco라 부름

❍ 미팅장소 : 제작소 현장 (상호명 : FRANCESCO MAGLIA)

② 현황 설명 주요 내용

❍ 1850년 밀라노 인근 파비아(Pavia) 지역에서 처음 독립된 우산 공장을 개업하였으며, 1876년 밀라노로 이전·확장하였음

※ 밀라노 확장 시 쓰던 작은 재료 보관함 현재도 사용중

❍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우산 제작으로 가업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보면 우수한 품질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소수의 장인으로 세밀히 제작하는 공정이다 보니 대량 생산은 어렵지만,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 (우산천 재단 시연 하며) 과거에 할아버지(4대)는 무거운 가위를 사용하여 재단했지만(사진 참고), 자신은 전용 기계장비 사용 중임

⇨ 전통을 최대한 지키고 있지만 좋은 품질 제작을 위해 바꾸어 나가는 부분도 있음

❍ 우산대, 천, 액세서리 등 맞춤형으로 제작 가능하며, 평생 AS

※ 1930년대에 제작한 우산을 최근에 수리해 주었음

❍ 제작소를 운영하는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은 전혀 없으며, 이탈리아 내에 우산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장인기업은 현재 이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음

③ 주요 질의 답변

❍ 연간 제작하는 우산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 한 달에 약 400~500개 정도 제작하며, 1년 동안은 5,000개 내외 생산하고 있음

❍ 주요 판매국은 어디인지? 연 매출은?

⇨ 대부분 유럽이고,(영국 50%, 독일 20%) 일본과 중국에 각각 10% 정도씩 수출을 하고 있음. 연간 매출은 약 140억 정도임

❍ 가업을 잇게 되는데 망설임은 없었는지?

⇨ 어릴 때부터 이곳이 나의 놀이터였고, 나만의 우산을 만들어 보는 등 자연스레 재미와 사명을 느끼게 되었음.

※ 아들이 향후 가업을 잇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

❍ 부품들은 손수 제작하는지? 아니면 공수해 오는지?

⇨ 이탈리아나 인근 국가의 계약된 협력 업체에서 품질검사 통해 공수하며, 우산대 중에 일본산 대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음

❍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 나무를 다듬는데 6년, 천을 재단하는데 5년, 우산살과 천을 잇는 기술은 8년, 다른 기술도 있지만 모두 배우는데 최소 20년 이상은 걸릴 것임

○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 아버지 세대에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은퇴를 많이 하여 숙련된 직원이 부족함. 이탈리아도 수공예 노동 분야 취업이 기피되면서 오래 근무할 직원 고용에 어려움이 있음

④ **시사점**

○ 170여 년간 6대를 이어오며 하나의 업종에 가업을 잇고 있는 장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음

○ 이탈리아 장인의 한땀 한땀이라는 말처럼, 우산이 300~500유로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숙련된 직원이 하나하나 소량 생산하는 고가의 우산으로, 대량생산 되는 저가 우산과 차별화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유사하게 정부 및 충청남도 명장을 심사·선정하고, 그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기술분야 숙련자를 우대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취지임

○ 가업승계를 통한 지역상권 유지를 위해 가업을 잇는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사업 추진 필요

⇨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 종료 후 그 가업을 이을 자녀(에코붐 세대)*가 많은 인구 구조상 지원사업 효과 클 것으로 기대

※ 농어업인 대상 가업승계 지원 근거 조례는 이미 제정(22.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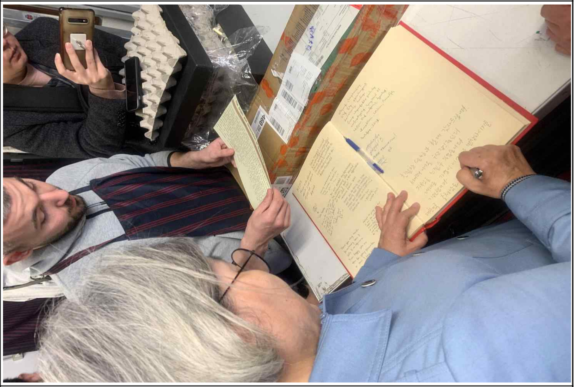
⑤ 현장 사진

< 천 재단 시연 및 3대를 이어온 가위 >

< 작업장 설명 >

부품 수납장 (100여년 사용)

< 방명록 작성 >



< 우산 제작 다양한 재료 >

< 방문기념 사진 >

7 프라다 문화재단 (현장 견학)

① 방문 개요

- ❍ 방문일시 : 2023. 3. 15.(수) 14:00~15:30
- ❍ 방문장소 : 프라다 밀라노 문화재단 (방문 시 미술품 전시 중)

② 현장 견학 주요 내용

- ❍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프라다(PRADA)는 1913년 마리오 프라다가 밀라노에 설립한 이탈리아 기업임
- ❍ 문화재단은 기업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라다 브랜드의 발생지인 밀라노에 문화시설을 건립하기로 기획 (1993년)
- ❍ 밀라노 남부의 산업단지 내 버려진 증류주 양조장 건물 7개동을 포함한 1만 9천㎡ 부지를 매입하여 7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3개 건물을 신축하며 미술관 등 복합문화 공간 건축 (2015년)
- ❍ 현재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중

③ 시사점

- ❍ 밀라노 남부의 낙후 지역에 프라다는 100주년을 기념하여 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꾸준히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 시내권과는 떨어져 있지만 이곳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변에 다른 상가나 관광지도 방문하는 효과 발생
- ❍ 영국 런던의 폐쇄 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음에도 그 건물을 보존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의 경제적 효과 재고 필요

※ 주변 지역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중 (상권 재형성 기대)

❍ 연수단이 묵었던 밀라노 숙소도 오래된 방직공장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도시의 고풍스러운 이미지 유지

⇨ 신축보다 리모델링 통한 건물의 가치 재창출에 대한 경제 효과 검토 필요

프라다 문화재단 건축물 리모델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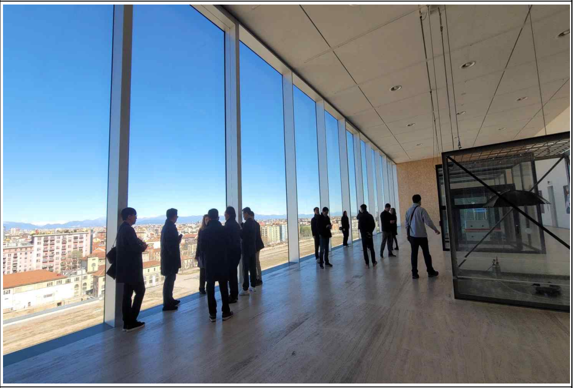
- 2011년, 베니스 18세기 초 궁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
- 2017년, 상하이 근대 건축물(룽자이) 복원 및 리모델링 등

※ 2008년 런던 폐창고 활용 클럽 운영, 2009년 서울 경희궁 앞 트랜스포머 건물 설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시적 행사도 진행

④ 현장 사진

< 10개 건물 배치 설명 >

< 내부 전시장 >



< 문화재단 내 카페 >

< 방문기념 사진 >

8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 (공식 방문)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3. 16.(목) 16:00 ~ 17:30

❍ 현장설명 : 김태환 법인장, Alexander Frey 부대표

❍ 미팅장소 : KEB하나은행 외부 회의실

② 현장 설명 주요 내용

<하나은행 독일 법인 소개> ※ 김태환 법인장

❍ 하나은행 독일 법인은 하나의 지점이 아닌 독일 현지 은행으로 법인 등록하여 운영 중임

❍ 외환은행을 과거에 인수하면서 국내은행 중 해외네트워크 국내은행 중 가장 잘 발달하였다고 생각

❍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경제 관문이라 불리는 경제 도시로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한 인근 도시에 비유럽국가 유럽지점 다수

※ 기업들의 생산 공장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에 다수 설치 추진 중

<독일 은행 시스템 설명> ※ Alexander Frey 부대표

❍ 크게 사기업 은행, 공적 은행, 상호 은행 3가지로 분류가 되며 상호 은행, 공적 은행, 사기업 은행 순으로 개수가 존재

❍ 유럽 전체 은행은 약 6,600여 개로 그중 독일에만 1,702개임, 두 번째인 폴란드(664개)보다 월등히 많음

❍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은 일반적인 각 국가의 금융감독원 이외에 유럽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조절 등을 위해 각국의 주요 은행을 관리 중임

○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쓰는 국가와 일부 협정국가 간에 SEPA (Single Euro Payment Area, 단일은행결제시스템)를 활용하여 계좌를 계설하여 서로 다른 국가간에 빠른 계좌이체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음

③ 주요 질의 답변

○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이 거래하는 주요 고객은 어떻게 되는지?

⇨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이 주요 고객으로, 정부 기관과 유럽 은행에서 출자하여 만드는 대출 관련 기관에 우리 은행도 일부 참여하여 외국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는 있음

○ 유럽기업의 대한민국 진출 시에도 하나은행 독일 법인 등과 소통하며 진출하는 사례가 있는지?

⇨ 유럽기업이 한국을 진출하려 할 때 자본 수요보단 먼저 선행되는 것이 보통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등 행정적 자문인데 문의가 온다면 설명을 하고 있음

④ 현장사진

< 하나은행 개요 설명 >

< 기념품 전달 >	< 방문기념 사진 >

9 전남 유럽 해외사무소 (공식 방문)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3. 17.(금) 09:00 ~ 10:30
- 현장설명 : 김기철 전남 유럽 해외사무소장
- 미팅장소 : 전남 유럽 해외사무소 회의실

② 현장 설명 주요 내용

- 2012년에 유럽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였으며, 당초 전남에 유럽기업의 유치를 중점으로 하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전남 기업의 무역 수출 확대와 국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은 프랑크푸르트 인근 애쉬본이란 경제 특화를 위해 만든 위성도시로 한국기업 유럽 본부도 많음
- 소장과 현지직원 2명, 총 3명이 근무 중으로, 총 3.4억 규모의 예산으로 통상지원, 관광홍보 등의 업무 수행 중
-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 음식을 찾는 유럽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전남 식품 상설 판매장을 2021년 비엔나, 202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로테르담에서 진행할 예정임

❍ K-Food 열풍의 예로 한국 라면이 유럽연합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수입 중단으로 재고 부족해지자 사재기하는 현상 발생

❍ 전남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은 유기농 식품 시장으로,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아시아 식품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유럽과 한국 자국 내 인증 상호 인정 중)

③ 주요 질의 답변

❍ 해외사무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도내 기업 등 관계기관(인)의 박람회 참여인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 전라남도의 특성상 농수산 식품이 주 수출 대상인데, 유럽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식품 박람회인 파리 SIAL 박람회, 독일 퀼른 박람회 등에 전남 부스 운영하며 K-Food 홍보

⇨ 현안사항으로 독일의 큰 축제 중 하나인 뮤제움스우퍼 축제가 올해 8월에 열리는데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전남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을 홍보할 계획을 준비 중임

※ 한국식품관 운영을 하게 되면 충남과 협업체계 가능한지 제안

❍ 해외사무소로의 문의가 한국과 독일 기업에서 모두 오는지?

⇨ 전남 소재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에 대한 문의가 본청을 통해 자주 들어오며, 반대로 독일 기업의 한국 음식 수입에 대한 문의도 해외사무소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가 옴

※ 한국 식품기업과 독일 수입기업 서로간 소개 역할도 실시 중

❍ 한국으로의(전남으로의) 투자나 수출 문의도 있는지?

⇨ 독일 기업의 한국으로의 수출 관련 문의에 비해 투자 관련 문의는 적은 편임

❍ 현지 직원의 한국으로의 연수도 실시하는지?

⇨ 1년에 한 차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 직원이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식품(제품)의 생산과정이나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④ 시사점

❍ 충청남도도 유럽 해외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려는 상황에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전라남도 유럽사무소의 방문은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에 참고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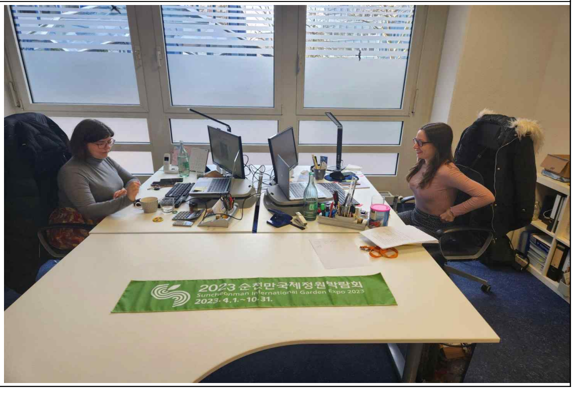
❍ 해외사무소를 통한 국내기업의 유럽 수출이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전보다 좋은 기회의 시기인 점을 확인

※ 연수 기간 중 한식당 방문 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음

❍ 특히나 식품 수입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에 국내 농수산물의 가공·비가공식품의 수출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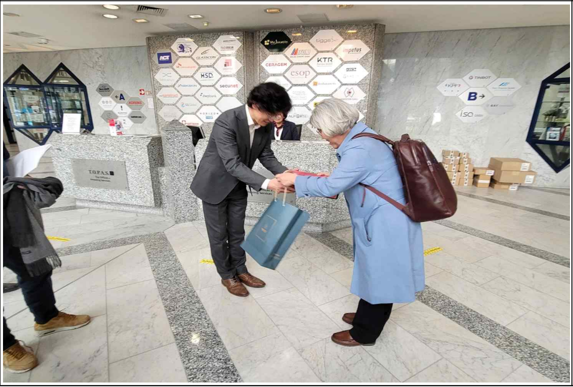
❍ 해외사무소에 채용되는 현지직원의 충남 식품과 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국내 연수 프로그램 필요

⑤ 현장 사진

< 현황 설명 >	< 직원 사무실 >
	

< 전남사무소 홍보 물품 전시 >

< 기념품 전달 >



< 방문기념 사진 >

10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공식 방문)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3. 17.(금) 10:50 ~ 12:00

○ 현장설명 : 이수영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부관장

○ 미팅장소 :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회의실

② 현장 설명 주요 내용

○ 유럽본부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으며, 무역관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음

❶ 국내 중소기업들의 독일 수출 지원, ❷ 독일 기업의 한국 투자 상담

❸ 독일 진출 한국 기업과 독일 취업 희망 한국인 구직자 매칭 지원

❹ 시장조사 마케팅 지원 등

❍ 독일은 수출 기준 14번째, 수입 기준 7번째 교역 상대국임

※ 對 독일 수출·입 동향

(단위 : US 백만$,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2020	9,576	10.3	20,681	3.7	▲11,105
2021	11,110	16.0	21,996	6.4	▲10,886
2022	10,068	▲9.4	23,615	7.4	▲13,547
2023.1월	736	▲8.8	1,961	19.4	▲1,225

❍ 전기자동차,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의약품 중심으로 높은 수입 증가세 보임

※ 2022년 對 독일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축전지, 전기자동차, 의약품, 메모리반도체, 스마트폰 순
- (수입) 하이브리드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의약품, 전기자동차 순

❍ 과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근무할 때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을 느끼고 있음

- 한국 투자나 한국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기업들을 찾아다니기 바빴는데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먼저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음

❍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높았다가 탈중국화를 노력하며 유럽 내 생산 우선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음

- 우리 기업들도 독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독일이나 유럽(특히 동유럽*)에 생산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문의가 오는 상황
  *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 기업들이 선호
-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자동차·기계 부품들의 수입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 국가 공급처를 알아보고 있는 동향임

○ 유럽 내 기업이 생산 공장 증설 등 한국 투자를 희망할 때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는데, 충남에서도 유럽에 해외사무소가 있으면 이런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을 자문할 때 도움이 될 거 같음.

○ 23년 6월 말 한류 박람회가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이곳 프랑크푸르트 전시관에서 열리는데, 현지 분위기는 이때 한국 연예인이나 문화에 대한 소개에 관심이 많음

※ 홍성의 K-POP 고등학교 학생 초청 건의

③ 주요 질의답변

○ 지자체의 해외사무소가 있으면 국내 중소기업의 독일 수출이나 독일 기업의 한국 투자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는지?

⇨ 코트라가 지자체와 협업해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나 지자체 해외사무소의 유무에 따라 독일 기업과의 소통력 차이는 존재

※ 화상회의와 현지 직원과의 대면 회의에서 오는 신뢰감의 차이 등

○ 한국 음식에 대한 현지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 라면이 예전부터 인기가 많아 이제는 한국 라면은 인기 음식이 된 상태고, 최근 인기가 많은 것이 떡볶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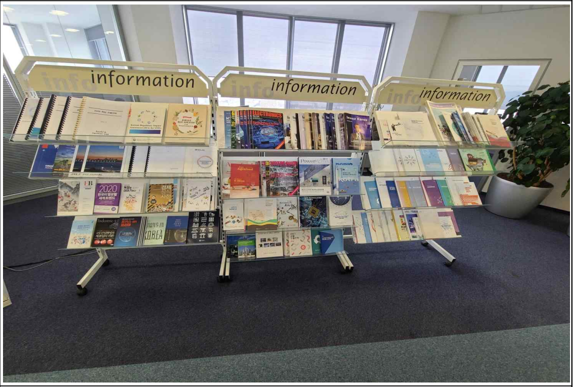
⇨ 타 지자체(전북)에서 박람회 시 지자체 홍보를 위해 특산품을 활용한 푸드박스를 만들어 홍보 및 판매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좋았음

○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지?

⇨ 우리나라 라면 이외에도 해조류 등 칼로리가 낮은 면류 식품이 유달리 인기가 높은데 인데, 이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독일인이 건강음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한국 드라마에서 인삼즙 등 한국 건강음료 마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며 인삼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음

④ **현장사진**

< 현황 설명 >	< 안내 브로슈어 >
	
< 기념품 전달 >	**< 방문기념 사진 >**

11 파이퍼베큠 기업 (공식 방문, 반도체 공정 진공펌프 생산)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3. 17.(금) 15:00 ~ 16:30

○ 현장설명 : 브리타 기센 파이퍼베큠 CEO 등

○ 미팅장소 : 파이퍼베큠 본부 회의실

② **현장 설명 주요 내용**

❍ 1890년 Arthur Pfeiffer에 의해 회사가 설립 되었으며 진공 기술 분야에서 1920년대부터 동종업계 선두분야를 유지하고 있음

※1958년 진공펌프 개발 후 진공기술의 표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

❍ 한국(아산)을 비롯하여 독일(아슬라), 프랑스(안시), 루마니아 (클루이), 베트남(호치민), 중국(우시) 등 10개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총 3,935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 중

※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파이퍼베큠 입장에서 주요 고객임

❍ 충남 아산 인주면에 2022년 10월 기존 공장을 증설 확장하는 MOU체결하였고(4만 8,694㎡),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7천만$ 투자)

❍ 진공기술 관련 다양한 특허를 보유중이며, 아산에서 생산하는 진공펌프도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 억제하기 위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

③ **주요 질의답변**

❍ 타 국가에서 생산기지 공장을 운영중인데, 진공펌프 생산기지를 아산에 증설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반도체 생산 강국인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스와 같은 진공 펌프 공급사에 펌프를 공급하는 운송 거리가 짧은 장점

⇨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근면함을 갖춘 훌륭한 국가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아산에 있는 외국인투자단지 내 토지를 임대하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택의 큰 이유가 되었음

※ 임대료 전액 면제 투자 대상 기업에 해당 (제조시설, 채용인력 등 기준)

⇨ 반도체 관련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아시아의 주요 공장은 현재 아산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공장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진공펌프와는 다른 종류임

❍ 2026년 아산에 공장이 준공되고 나면 노동자의 채용 규모는?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아산으로 오는 근무 인력도 있는지?

⇨ 현재 공장에는 작년 기준 3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7년까지 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 채용 포함하여 176명 신규 채용 계획임

⇨ 독일에서 파견을 가는 직원은 별도로 없을 예정이며 모두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계획

❍ 자국인 독일 내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것에 비해 한국에 투자하여 얻는 이득이 별도로 또 있는지?

⇨ 유럽은 제품 생산에 쓰이는 전기가 어느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쓰일 것인지 등 공장 증설에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며, 독일 현지 공장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

※ 독일은 기업에서 쓸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등 종류를 분류하여 구입하여 기업의 탄소줄이기 운동 정도를 확인

⇨ 독일에서 생산된 공장에서 제품 공정상 발생하는 열을 식힌 온수는 주변 도시 난방 등에 활용

〈 파이퍼베큠 질문 〉

❍ 아산시 인주면이 바다와 가까이 있는데 해수면 상승이나 만조와 태풍이 겹치며 공장이 침수 피해를 받진 않을까 걱정임

⇨ 아산시 인지면 앞은 바다와 인접해 있긴 하지만 해수면이 낮고, 만* 형태로 큰 파도가 발생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바다가 육지 안으로 파고들어 있는 지역

④ 시사점

❍ 한국이 직원 인건비가 동남아나 중국보다 낮지 않음에도 반도체 생산 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운송비를 절감하여 보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 우수한 인력이 많다는 답변은 외국 기업에서 한국 투자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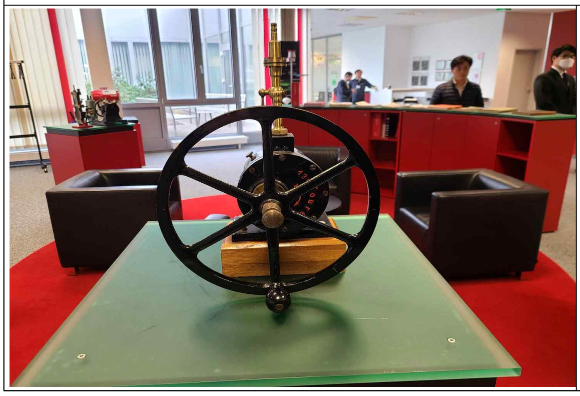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는 유럽에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까지 관리하는 등 환경 문제의 까다로운 조건이 외국으로의 생산공장 증설을 유도하고 있음

※ 파이퍼베큠은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준비를 인지하며, 향후 기업에 어떤 제재 조건이 생길지 관심 있게 보고 있음

⑤ 현장사진

< 기업 현황 설명 >

< 초기 개발 펌프장비 전시 >



< 방문기념 사진사진 (내·외부) >	

12 프랑크푸르트 자율주행 버스 (현장 견학)

①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3. 18.(토) 10:00~11:00

○ 현장설명 :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전요원(시범운행 기간 중 탑승)

○ 방문장소 : 프랑크푸르트 리더발트 지역

② 현장 견학 주요 내용

○ 리더발트 지역은 프랑크푸르트 동쪽에 있는 단독주택가 지역으로 주택가 도로 2.7㎞를 순환하며 시범운행 중임 (23.7월까지)

○ 6인용으로 시속 20㎞ 제한속도*로 운영 중이며 전용 앱으로 목적지 입력하여 호출하면 버스가 와서 승차

* 시범운행 종료 후 종합 검토하여 제한속도 늘려 운행 예정임

○ 자율주행 단계는 Level 4*로 운영 중이지만, 버스 운영회사 안전책임자 1명이 탑승하여 필요시 제어 중

* 고등자율주행, 운전자 개입 불필요 / level 5 완전자율주행 (운전자 불필요)

○ 충돌방지를 위해 8개의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중이며,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작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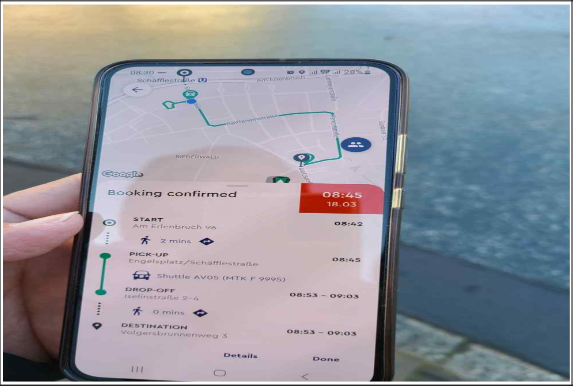
※ 탑승 중에 비둘기 도로 진입하자 긴급 정지, 반대편 차량 오자 한쪽으로 가까이 붙음

○ 레이더로 운영되어 안개나 우천 시에도 정상 작동 가능하나 우박이 많이 내리면 장애물로 인식하여 문제가 있기도 함

③ 시사점

- ❍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자율주행 버스 운행 중이나, 독일은 주택가에 소규모 버스로 운영 중임이 차이가 있었음
- ❍ 목적지를 입력하여 호출하는 시스템을 충남 농어촌 지역에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주행 버스 활용 가능한지 검토

④ 현장사진

< 셔틀 버스 외관 및 실내 >	
< 긴급 정지 버튼 >	< 수동 조작 리모콘 >
< 버스 이동 앱 표시 >	< 방문기념 사진 >
	

Ⅳ 정책 제언

① 폐쇄 또는 폐쇄 예정 화력발전소의 리모델링 활용

○ 영국 런던에 화력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한 테이트 모던 신도시 내 쇼핑몰로 변신하여 랜드마크가 된 배터시 파워스테이션

- 기존 발전소를 허물고 미술관이나 쇼핑몰로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역사를 기록하며 보존하고 도시의 새로운 경제 활력으로 만든 사례
-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화력발전소,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폐쇄된 화력발전소는 철거해야 할 건물만은 아님

➜ **전국 화력발전소 절반인 29기가 위치한 충남에 폐쇄된 또는 폐쇄 예정인 화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대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개발 필요**

※ 중부발전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문체부에 기부하고, 문화예술공간 리모델링하여 25년 개관 예정 등 유사 사업 참고 추진

② 노후 건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 모델 추진

○ 구도심, 과거 공장(산업)단지 개발 철거 → 새로운 건물의 신축만이 방법이 아님을 확인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재창출)

- 이탈리아 밀라노의 프라다 문화재단, 아직은 부족하지만, 외곽 오래된 산업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 중
  (주변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중)
- 독일 에센의 졸페라인은(독일 최대 탄광지역) 폐광 후 석탄가루만 날리던 지역이었으나 기존 시설 보존하며 관광지 등으로 개발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거창한 성공사례가 아니어도 연수단이 밀라노에서 묵었던 숙소도 방적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등 기존 건물 보수로 재활용 사례 다수
- 우리나라도 세대가 계승되고 생활 형태가 급변하면서 가까운 과거의 유산이 후세대는 낯설게 느껴지는 새로운 지역 방문의 소재가 될 수 있음

➜ **한옥 등 전통적 건축물만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경제 발전 시기의 남겨진 건축물도 가치를 확인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재고 필요 (지방 소도시 미곡창고를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개소 후 성공 사례 다수)**

③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및 사업 확대 추진

○ **동일 업종에서 대를 이어 가업을 승계하여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현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3년 기준 43,700천원으로 5개 업체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지원은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22년 10월 제정하여 구체적 사업 실시 중
- 경제활동의 주축이었던 베이비붐세대가 고령화 되면서 소상공인 등의 업종에서도 은퇴가 늘며 그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의 가업 승계 지원 필요

* 1979~1992년 태어난 세대

➜ **경제진흥원에서 수행 중인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실시하고, 별도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추진 근거 명문화 필요**

④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신중한 검토 필요

○ **해외통상사무소 타 지자체 운영사례와 코트라 해외무역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

- 2012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인 전남 해외사무소를 방문하여 유럽 내 활동 사항 등을 청취
-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와는 큰 차이를 부르며 K-Food의 수출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진 상황
- 충남이 유럽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해외사무소의 기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현장 여건 분석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에 전문적이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소장이 필요
- 유능한 현지 직원의 채용과 현지 직원의 대한민국 이해도 제고가 반드시 필요 (현지직원이 소개하는 충남의 농산물 등에 대한 이해 선행)

➜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방외교 활성화 등 해외사무소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창출에는 전문적이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소장이 필요**

⑤ 농촌형 자율주행차 운영 고려

○ **농촌형 자율주행차 운영으로 농어촌 주민 이동 개선**

-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이 서울, 세종 등 대도시 위주로 실시 및 예정

※ 올해 3월 충남 내포신도시도 자율주행 운영지구로 신규 지정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구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미니버스 운영을 참고하여 농어촌 등 시골 지역에 적용 시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상승 효과 기대

※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등 농촌 지역 자율주행 운용지구 선정(23.3월)

- 농어촌에서 시내권으로 이동하는 버스노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농촌형 자율주행차 검토

➜ **충청남도 농어촌 마을 내 순환형 자율주행차, 시내권으로 이동하는 노선형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을 통한 주민 교통복지 향상 필요**

⑥ 충남도립대학교 학생과의 소통 강화

○ **한국인 출신의 에든버러대 교수의 설명 중 우리나라 대학과의 가장 교육환경 차이는 교수와 학생간의 비율 문제로 인식**

- 대학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고의 장을 열고 열띤 토론을 거치며 생각의 힘을 키워 나가야하는 교육기관임

-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 강의실 내에서 학습 성과로 오랜 기간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으로 레포트, 학기 중 시험 등에 대한 학생과의 피드백 강화 필요

- 또한 도립대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수 대 학생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사항임

➜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감소하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학생입학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립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학생과의 소통력이 강한 대학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기경위 견문록

런던의 사회적기업 폐발전소 건물로 도시공동화 경제로 극복
밀라노 수공업 6대 장인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EU 경제중심도시 역할의 독일 프랑크푸프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의회사무처 기경위 전문위원실 직원 3명, 충남도 산업경제실과 기획조정실 직원 3명 등 12명이 한팀으로 충청남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산업경제연수단을 꾸려 2023년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유럽 3개국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산업경제분야의 국외 현장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영국, 이탈리아, 독일을 선택하고 2개월 전부터 준비하였다.

연수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과 유럽에서 산업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독일을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중국의 대량생산 물량공세에도 하나의 제품을 수공으로 대를 이어 제작해 각국에 수출하는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개인적으로 유럽국가 방문은 처음이라 산업경제를 포함한 유럽의 건축문화에 따른 도시경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공식일정을 소화하기 바빠 유명건축물 등의 내부 모습이나 유명 문화유적이나 자연경관지에 대한 방문은 없어 아쉬움도 있었다.

연수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방문지였다.

지방의원에 대한 도민과 언론의 국외연수 시선은 곱지 않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행정기관에서 보내주는 주민들의 국외연수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기초의원나 광역의원들의 국외공무연수는 ‘혈세낭비’라는 용어로 언론에 단골 메뉴처럼 보도되고 있다.

의원 1인당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350여만원 정도, 그래서 유럽 등 비용이 비싼 지역은 매년 가지 못하고 2년에 한 번 정도로 갈 수 있다.

우리 상임위가 기획경제위원회이다 보니 산업경제분야를 살펴보는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

첫 번째 영국에서는 산업부흥기를 지나 쇠락하던 도심 속 공동화지역을 사회적기업을 통한 주민자산화와 폐쇄된 발전소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마련한 사례와 에딘버러대학과 고용보장센터의 역할.

두 번째 이탈리아에서는 공장 중심, 대량생산으로 만들어 내는 제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시대에 6대째 수공업으로 명품을 만들어 10여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산제조 장인가문과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프라다재단의 문화사업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의 사례.

세 번째 독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경제 도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진출한 한국 하나은행 독일법인, 코트라, 반도체용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으로 충남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독일 본사 방문, 자율주행 버스 탑승 등을 통한 다양한 산업경제방안에 대한 사례 중심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준비했다.

도심 폐허공간을 주민주도 공동체생활공간으로
폐발전소를 주변경제 살리는 문화와 상업공간으로 변화시킨 런던

3월 10일 낮 12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영국 런던에 저녁 6시10분 도착(15시간 비행, 시차 -8시간)을 거쳐 14일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동하고 16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도착 후 일정을 소화하고 18일 오후 5시35분 비행기 탑승, 19일 낮 1시15분 인천공항 도착하는 일정이다.

영국의 화폐는 파운드(GBP)이며 이태리와 독일은 유로(EUR)이고 환율은 1,500원 정도에 날씨는 초봄 또는 초가을 기온이었다.

첫 번째 방문 도시인 영국의 런던에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유인 심사대를 타국가 국민과 비교하여 무인 심사대를 통과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영국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코로나-19가 유럽인들에게는 안심 단계로 여기는 것 같았다.

연수 2일차에 템즈강 인근에 있는 코인스트리트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CSCB)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다.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는 런던 사우스 뱅크(South Bank) 지역을 개선하고 재생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낸 사회적 기업이자 단체다. 1984년부터 약 13곳의 도심내 폐허 공간, 유휴 공간들을 주민 주도적인 과정에 따라 조화롭게 개발, 재생하는 성과로 주변 상권을 살렸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는 이 과정에서 옥소 타워뿐만이 아니라 코인스트리트 일대에 주택, 공원, 주민센터 등을 조성하고 주민 자산화했다.

토요일이었지만 연수단을 맞이해준 코인스트리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담당자와 매니저가 우리 일행을 맞이하고 안내를 해줬다. 코인스트리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운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았다.

코인스트리트의 특징은 정부와 민간사업자 중심의 개발이 아닌 주민 스스로의 정책결정과 사업 추진이 성공한 사례로 결성된 지 30년 가까이가 되었음에도, 운영 조직은 안정적이고, 주민의 참여도는 높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은 걸릴지라도 주민 자치 사업은 꾸준히 실시되고 있었다.

주민센터 내 회의장 등 시설 견학 후 옥상에 올라가 코인스트리트의 전체적인 범위와 주택시설, 아이들 놀이시설 그리고 수영장, 복지시설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둔(Doon) 스트리트 사업 현장을 설명해 주었다. 소공연장 등이 있는 1단계 공간은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이었고, 수영장, 임대주택, 복지시설 건물은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되고 나면 새로운 주민이 늘어나고 편의시설이 다양해져서 주민 복지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 한다.

인상 깊었던 것은 주민들이 가족들과 살 수 있도록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260채를 건립, 1천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60채 정도는 시세의 1/4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적 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자본의 유입을 막아내고 있는 이사회의 방침이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코인스트리트의 가능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도 주민자치회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 의식이 더욱 성장한 만큼 주민자치회나 사회적경제조직 등 코인스트리트와 같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형태로든 주민 스스로

만든 마을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의회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연수 3일차에 폐쇄된 화력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바뀐 테이트모던과 종합쇼핑몰로 리모델링하여 런던의 랜드마크로 부상한 배터시 화력발전소를 방문하였다.

폐쇄되었던 배터시 화력발전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아이콘으로 변모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화력발전소의 외관과 다른 벽돌로 된 모습이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려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 두 곳 모두 런던의 명소로서 런던시민뿐만 아니라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았고, 내부에는 발전소 시설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배터시 화력발전소는 과거 터빈실 내에 카페와 식당을 만들어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하여 사람이 가득차 있었다.

테이트 모던은 영국 경제성장을 이끌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가 1981년 문을 닫은 이후 20년간 방치되다가 건축물 구조변경을 통해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으로 2000년에 개관했다.

우리 상임위가 방문했을 때는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살바도르 달리 등 거장들의 진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배터시 발전소 역시 영국 런던의 역사와 문화의 아이콘으로 1930년대와 1950년대 건설되어 런던 에너지 공급의 20%를 책임지다가 1983년 폐쇄되었다.

그 후 2011년 2011년 건축가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공간과 상업, 쇼핑, 예술공간으로 변모함과 동시에 발전소 주변을 배터시 공원 보행로와 연계해 공원화뿐만 아니라 발전소 중심부 공간에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퍼런스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

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로서의 기능을 마련해 나가고 있어 향후 런던의 새로운 신시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각 시군에서도 도시재생 또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유럽의 건축물들은 300~400년씩 갈 수 있는 가치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담지 못한 곳에 흉내내기식 리모델링을 하는 문제점도 있다.

과거의 노후한 건물을 허물고 깔끔한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만이 도시재생의 길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비용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담당기관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고민하고, 주민과 지역을 어찌 발전시킬지 소통하며 가치관을 공유하며 발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일 것이다.

또한 건축물만 보기 좋게 리모델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에 기여하며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갤러리, 컨퍼런스 센터 등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크게 기여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과 문화, 경제도시 에딘버러
고용보장센터와 스코틀랜드국회, 에딘버러대학 방문

연수 4일차는 에든버러지역을 방문했다. 먼저 에든버러 고용보장센터를 방문하였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2~3명이 직원에게서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1주일에 100여명 정도가 상담을 받는다고 했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공정한 작업, 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의회 산업, 고용주, 학부형 간 파트너십과 코로나19 이후 구직자와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다고 한다.

에딘버러 고용보장센터는 공식 방문 기관 섭외를 여러 차례 했는데 답변이 어려웠던 곳이었는데 현장에서 방문하게 되어 다행이었다.

부모취업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부모의 취업과 이직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아동빈곤을 해결하려는 센터의 활동이 인상 깊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건물과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영국이라는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인 스코틀랜드라는 국가의 의회를 둘러보는 것은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1997년 주민투표를 거쳐 1999년 새롭게 개원하였다고 하는데 본회의장을 비롯한 실내는 20년의 세월이 지난 것과 같지 않게 깔끔하였다. 특히 본회의장은 천장이 일부 유리로 된 개방형에 기둥까지 없어 소통을 위한 공간구성에 집중한 듯하였다. 본회의장 지붕구조가 독특하였는데 배의 선체가 뒤집힌 모양을 참고하여 설계한 것이었다.

영국 일정 마지막으로 에든버러대학교를 방문하였다.

한국인으로 이 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 조교수인 송지원를 만나 교수를 통해 에든버러대학교의 현황과 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송교수는 스웨덴에서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관련 박사학위를 받고 런던 그리니치대학에도 근무했으며 한국 주요일간지에 국제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인물이다.

실업율, 파업권 제한에 대한 입장, 젊은이들의 결혼율이 한국보다 낮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점과 한국은 사회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고교생 대학진학률은 한국보다 낮은 점,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 현안들에 대한 강의와 문답이 오고 갔다.

에든버러대학교는 1583년에 개교한 공립 종합대학교로 영미권에서는 여섯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학부와 대학원생이 3만 4천여 명에 이른다.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대학 랭킹 16위, 유럽 7위, 영국 내 5위, 스코틀랜드 내 1위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부금을 영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가장 낮아 학생과 교수 간 소통이 많다.

한국과 유럽권 대학의 차이점 중 큰 부분이 학생의 레포트 제출 등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 정도라 볼 수 있고, 피드백의 깊이는 교수대 학생의 비율 차이가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대학의 경쟁력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강의실에서부터 나온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충남도립대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에 대해 고민이 되었다. 인구 감소시대, 지방 소멸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대학의 학생입학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단시간에 될 수 없는 만큼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론과 학습의 다양한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밀라노에서 6대째 우산명장을 만나고
세계명품 회사의 사회공헌문화재단을 방문하다

연수 5일차에 영국 에든버러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연수단 중간 점검 및 휴식을 취하였다.

연수 6일차 오전에는 1854년에 창업하여 6대째 가업을 승계하여 약 170년간 액세서리 및 우산을 제작하고 있는 말리아 프란체스코 명장 기업을 방문했다. 우리에게 현장 설명을 해주던 장인은 6대째로 30대 초반의 젊은 대표였다. 그의 어머니도 같이 나와 우리 연수단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는데 현장 설명도 아주 자세히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중국 등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부터의 대량 생산되는 우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을 떠나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었다. 140억의 연매출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었고, 생산제품 중

40%가 영국에 판매되며 수출은 독일 20%, 중국 10%, 일본 10% 등이다. 비가 많이 오는 영국에서 우산을 많이들 구매하는데 메이드 인 이탈리아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하는 것이 우선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확실하였다.

장인 형태 기업은 밀라노에서 이곳뿐이었으며 100여가지 우산 제작 과정을 직접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다. 우산살은 끊어지지 않는 카본으로, 우산 지붕천은 고어택스를 사용해 시간당 시속 80Km 바람불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우산 제작 시 수출하는 지역의 기후를 고려해 비가 많이 내려 습한 동남아는 발수가 잘 되게 제작하고 공기가 건조한 지역은 우산 지붕을 넓게 만드는 등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놀랐던 점은 연수단 방문 전날에 1930년대 제작한 우산을 수리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우산의 부속품을 보고 제작연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100년 가까이 된 우산을 지금도 쓰는 것에 놀랐지만 그것을 수리해 주는 판매업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수리해서 다시 쓰면서 명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값싼 중국산 우산이 우리의 시장을 장악하면서 고장 나면 다시 사면 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리의 습관이 우리나라의 전통 있는 기술자들이 계승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프란체스코 6대 젊은 장인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나서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에 대해 물으니, 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이어받는다고 하면 물려줄 것이고 했다.

우리 일행은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공주 철화분청 접시를 방문기념 선물로 전달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나오는 유물을 후대들이 작업한 작품이라고 설명하니 그의 어머니가 감동하며 받으셨다.

오후에는 밀라노 외곽에 위치한 프라다 문화재단을 방문하였다. 이번 유럽 일정 중에 프라다 문화재단을 방문하겠다고 하니 직원들이 프라다라는 명품 명칭이 나오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며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회사가 사회공헌,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문화재단을 방문해 그 역할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프라다 기업은 상업만 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장인 정신이 글로벌 기업의 바탕이 되었고 그 이후 문화예술투자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였으며 건축에도 기업 정신을 담을 정도로 혁신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적인 명품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프라다 문화재단은 밀라노 남부지방에 있는 한때는 번성했으나 쇠퇴하고 있는 라르고 이사르코 산업단지에 있는 증류주 양조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명소로 바뀐 곳이었다. 프라다 문화재단은 1993년에 설립되었고 밀라노에 있는 문화재단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양조장 건물 3개를 현대적으로 고쳐 극장, 영화관, 타워 등으로 활용하는데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색다른 장소로 밀라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찾아오게 만들고 있었다. 밀라노 외곽의 사람이 찾지 않던 산업단지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주변은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프라다 문화재단이 주변 개발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건물 내부는 각종 미술품 전시장과 극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미래지향적이며 현대적인 콘셉트의 복합 문화공간이며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가 연중 열리고 있다. 재단 건물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관람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한다. 이 입장료는 작가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있다.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는 영국, 벨기에와 미국의 미술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이 주변 지역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그 이후가 궁금하다.

충남에 많은 기업들이 있다.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든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프라다 문화재단 카페에서 에소프레소를 마시며 곱씹어 보았다.

그러고 보니 연수 6일차 될 때까지 유럽을 방문중임에도 카페에 앉아 한가한 마음으로 차 마시는 일정조차 없을 정도로 바삐 움직였다.

푸랑크푸르트의 하나은행과 코트라, 전남사무소, 충남 외투기업 본사 방문과 자율주행버스 탑승

연수 7일차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여 도착 후 리더발트라는 동네로 사전에 예약한 자율주행버스를 타러 갔으나 버스에 문제가 생겨 탑승하지 못하고 독일을 떠나는 날인 9일차에 다시 타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다음 일정으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법인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은행이 독일 등 유럽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지원하는 역할과 독일 은행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다. EU도 세계 자국 우선주의의 기조 속에 유럽 수출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생산공장 건설을 준비중인 곳이 많으며 하나은행으로의 문의도 들어오며 상담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독일과 유럽의 은행 구조 설명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이지만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며 EU에 속해있는 국가 간에 계좌이체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EU라는 하나의 체제 안에 언어가 다른 국가이지만 단일화폐를 쓰고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연수 8일차 오전에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유럽 해외사무소를 방문하여 12년 개소부터 현재까지의 운영 상황을 청취하였다. 충청남도도 기존의 3개 해외사무소에 추가로 4개소 설치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오랜 기간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었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상승도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라 한다. 해외사무소 홈페이지에 소개된 식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반응이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식품박람회, 한류 문화 페스티벌 등 유럽 내 개최되는 행사에서도 한국 음식, 초청된 한국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선풍적이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전남 해외사무소의 경우 12년부터 장기간 근무 중인 김기철 소장님의 노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충청남도도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해외사무소라는 곳이 본청과는 멀리 떨어진 관리·감독의 책임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사무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유럽시장의 경우 가공식품 관련 수출은 수입국에 가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농산물은 스페인 등 지중해산과의 불리한 가격경쟁 등으로 어려울 듯하다. 다만 건강식품의 경우 중국산 구기자가 영국 등의 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한약재를 활용한 건강제품은 고민해볼 수도 있다.

첨단기술이 필요한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제품을 수출하거나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거나 한국기업이 유럽시장으로 진출하거나 다른 사업분야 보다 가장 전망이 밝은 것 같다.

충남의 경우 독일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사무소보다 충남이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해야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이어서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방문하여 독일과의 무역 현황을 청취하고, 유럽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탈중국화 현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관에도 수출을 위한 문의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의 자국 내 생산 우선 기조를 보이며 유럽에 생산시설을 지어야하는 것인지 다른 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고 한다. 세계경제가 점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무역을 통한 흑자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생각할 때 코트라 무역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란 생각이 들었고, 충남도 수출액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3위로 내려앉는 등 위기감을 느끼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방문이었다.

오후에는 반도체 공정 중 반드시 필요한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아산시 인주면에 외투기업으로 투자 중인 파이퍼베큠을 방문하였다.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던 기업으로 공장 내 생산시설을(사진 촬영 불가) 간단히 둘러보고, 회의실로 이동하여 회사 운영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기업이 파이퍼베큠 입장에게는 주요 고객이 이었고, 두 기업과 가까운 곳인 아산시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이 주요 이유였지만, 작년 아산시 인주면에 생산공장 추가 증설을 도지사님과 MOU를 체결하게 된 배경에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수준과 근면함을 다른 이유로 들어주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꼈다. 질의·답변 중에 브리타 기센 CEO의 질문이 있었는데 해수면 상승을 물어보는 것에서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유럽은 네덜란드 등 해안가에

위치한 국가가 저지대가 많아 해수면 상승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독일은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어느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쓰는지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생산공장에 어떤 규제가 추가로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생산 기업의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하겠다는 내용과 향후 국내공장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알리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유럽보다 느리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여 아이들에게 미래에는 깨끗한 공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9일차에는 한국으로 출국 전 오전에 프랑크푸르트 외관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6인승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는 리더발트 지역을 찾아갔다. 당초 독일을 처음 방문한 날인 7일차에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 방문 전에 탑승하려 했지만 현장까지 갔지만 버스에 문제가 생겨 타지 못하고 귀국하는 날 아침 다시 방문해 탑승하게 되었다. 버스는 RMV EASY라는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여 호출하는 호출형 버스였다. 앱을 통해 버스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앱으로 버스의 이동 표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외곽지역이라 인터넷 연결이 느려서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안은 안전요원 1명이 타고 있었고 느린 속도였지만 주차된 자동차 사이사이와 날아드는 새에 정확히 반응하여 주택지역의 좁은 길을 잘 운영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시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호출형 셔틀버스를 농어촌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어떤가 생각이 들었다.

영국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독일을 방문하면서 짧은 기간 방문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탄소중립이었다.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있는 버스와 화물차가 달리면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고속도로 이동 중에 보았다. 파이버베큠 본사를 방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도 한국의 석탄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려, 2030년부터 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수입, 수출품에 적용되는 탄소세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등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남았다고 덜 걱정하는 사이 유럽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지구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번 연수에서 아쉬운 것은 일정상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을 방문했으면서도 비용과 시간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도시를 방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한 지역 주변 역사적인 문화유적지도 제대로 보지 못한점이다.

영국에서의 전통시장의 현대화격인 리즈 커크게이트 마켓을 가보지 못하고, 이탈리아 밀라노는 갔지만 그 유명한 로마는 못가고, 독일 경제도시인 프랑크푸르트만 가서 공식 일정만 소화하느라고 베를린이나 뮌휀은 꿈도 꾸지 못했다.

연수 마지막날 자율주행 버스 탑승을 끝으로 예정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 인천 공항으로 연수단 전체 무사히 귀국하였다. 매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음에도, 중간에 아픈 분 없이 일정을 모두 소화해준 연수단 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짧은 기간이지만 8박 9일간의 공무국외연수는 우리 연수단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고 도민께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의정활동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8박 10일 간의 연수를 마치고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

선진 외국의 시설과 문화유산을 시찰하고 도의 행정에 접목할 방법을 찾기 위해 8박10일 간의 공무국외연수가 계획되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충남도가 직면한 현안과 유사한 모델을 찾고자 많이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정해진 나라는 영국, 이탈리아, 독일이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리라는 부푼 기대와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 연수단이 처음 방문한 곳은 영국 런던의 코인스트리트 상인회였다. 코인스트리트 상인회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세계대전 이후 쇠퇴된 도시를 금융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반발하던 주민들이 똘똘 뭉쳐 사회적기업을 결성하고 이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돌입했다. 도시계획부터 운영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 전통은 유지되고 있었다.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제시한 도시계획안을 수용해준 런던시청이나 사회적 기업을 믿고 지지하며 단단히 뭉친 주민들이나 이 모든 것은 신뢰에 바탕을 두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부·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배터시 파워스테이션과 테이트 모던이다. 두 곳 모두 폐쇄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하여 쇼핑몰, 전시관으로 탈바꿈하고

문화 명소로 발전시킨 사례이다. 자칫 폐허로 남아있을 이곳을 멋지게 개발한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이날도 어김없이 인파가 넘치고 있었다. 충남에도 태안, 보령 등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폐쇄를 앞두고 있다. 런던의 두 화력발전소의 성공을 곱씹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국의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 런던에 위치한 이유도 크겠지만,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배터시 파워스테이션의 경우 발전소 중심부에 지하철이 들어섰고, 테이트 모던은 밀레니엄브리지 건설로 템즈강 북쪽과 남쪽을 이어 접근성을 높였다. 충남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런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 연수단은 문화유산의 도시 에딘버러로 향했다.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인 만큼 아름다운 건물들이 즐비하고 있었다. 동화속의 한 장면을 걷는 기분으로 에딘버러 대학교에 도착하였다. 에딘버러 대학교는 영미권에서 여섯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자 23년 세계 대학랭킹 15위를 기록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다. 이곳에서 우리 연수단은 한인 교수를 만날 수 있었고 에딘버러 대학 현황, 영국의 경제·산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질문해 볼 수 있었다. 에딘버러 대학교의 특징은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었다. 교수 한 명이 개개인에 신경쓰고 부모처럼 케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토론식 수업방식 조성, 몰입의 강화 등 많은 이점이 있었다. 또한 영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만들어진 지식과 기술이 산업에 도움이 되고 투자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한다. 코인스트리트에서도 느꼈지만 영국은 서로 간의 신뢰가 참 깊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충남의 도립대학교도 명문대학으로 뻗어나가려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다음으로 이탈리아 경제중심지 밀라노로 향했다. 밀라노에서의 첫 일정으로 우산 제작 장인가를 방문하였다. 자손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현재 6대째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가위에서 전동가위로의 변화만 있을 뿐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이날도 수작업으로 우산 살에 천을 잇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1년에 5,000개 내외의 우산을 제작·판매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또한 전혀 없다고 한다. 중국의 대량생산에 따른 값싼 우산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고품질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충남도에도 명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들이 있다. 명장 스스로 자립하여 성장하고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밀라노에서 두 번째 일정은 프라다 미술재단이었다. 명품 가방으로 유명한 프라다가 기업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밀라노에 건립한 문화시설이다. 미술관 등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변 상가와 관광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밀라노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부터 예술작품 감상까지 다양한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금액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 것인데, 이를 확대하여 단체와 기업에서 지원받고 프라다 미술재단과 같은 물품·시설을 기부받으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역 유망 산업을 많이 발굴하고 성장시키면 우리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올 날이 머지않으리라 본다.

우리 연수단은 알프스산맥의 멋진 경관을 보며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프랑크푸르트는 인구 70만 도시로 유럽중앙은행이 있는 등 유럽 경제의 중심지라고 한다. 천안 정도의 도시가 유럽 경제의 중심지라는 것에 놀랐고, 충남에도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가 생기길 기원하며 하나은행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하나은행 독일 법인에 대한 소개와 독일 은행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유럽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등 행정적 자문에 대한 문의가 상당하다고 한다. 충남도에서 프랑크프루트에 해외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가 설립된다면 필요한 기능 중 하나일 것이다.

다음으로 전남 유럽 해외사무소와 코트라 프랑크프루트 무역관을 방문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충남도에서는 프랑크프루트에 해외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가던 기관들이었다. 두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외국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먼저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발 빠른 대응으로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이 식품수입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과 유럽 내 생산 우선주의 기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철저한 대응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퍼베큠이라는 기업에 방문하였다. 바이퍼베큠은 반도체 공정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충남 아산 인주면에서 진공펌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공급사에 운반하는 운송비가 짧다는 점, 외국인 투자단지 임대 토지 이용으로 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아산에 입주하게 된 배경이라고 한다. 이익에 민감한

기업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고려가 컸으리라 생각한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등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경우 외국인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연수 일정은 자율주행 버스 탑승이었다. 6인승의 작은 미니버스가 시속 20km의 속도로 단독주택가 지역을 순환하고 있었다. 아직 시범단계여서 2명의 직원이 동승하고 있었다. 충돌방지를 위해 8개의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 중이며,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작동한다고 한다. 그러나 운행 중 비상정지를 하게 되었을 때 아직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다. 크기가 작아 버스 등 차량이 가기 힘든 골목골목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로써 10일간의 연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3개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영국은 활성화된 자선단체와 자원봉사 문화, 이탈리아는 고품질의 상품과 이를 통한 관광 산업, 독일은 여러 기업이 몰려드는 금융 도시의 역할, 자신들이 가진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다. 아직은 물음표가 많지만 충남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기획경제위원회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